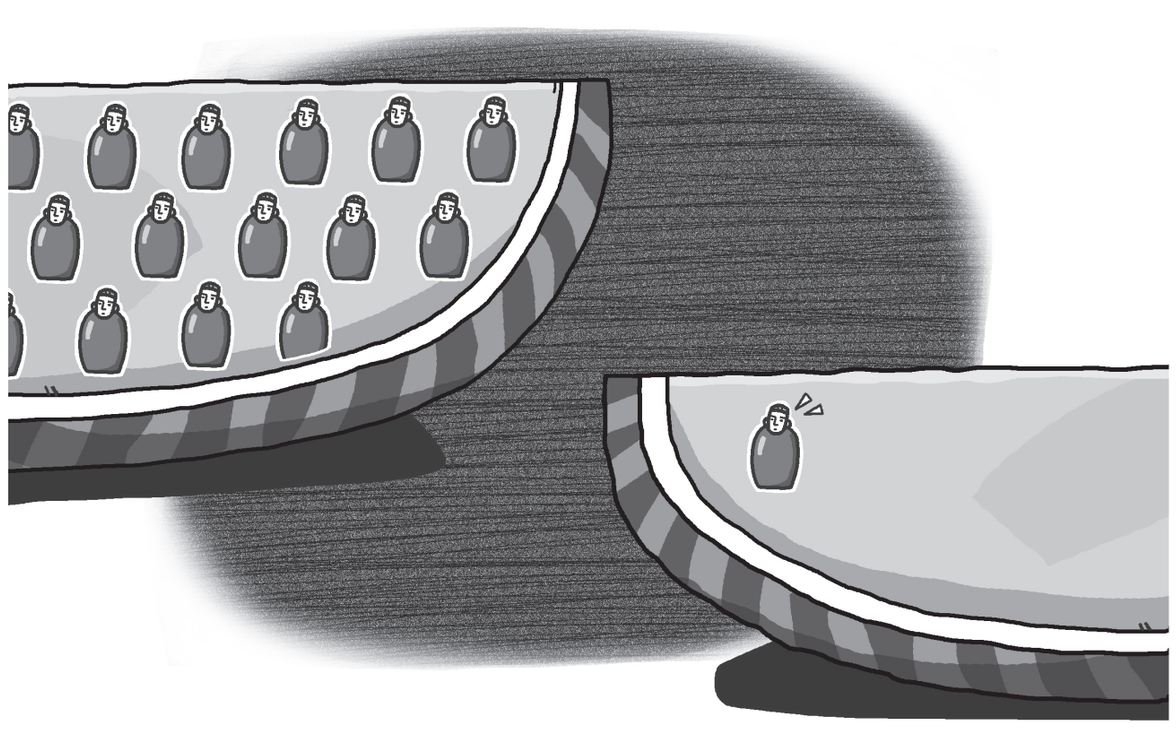
모든것을내부모내자식으로보고풀한포기도남으로보지말라

오늘 셋째 일요일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또 여러분과 같이 한자리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한 도반으로서 오늘은 실천궁행과, 인간의 도리를 다하는 인간 자체가 첫째 되어야 한다는 문제,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부처가 된다, 보살이 된다, 법신이 된다 이러기 이전에 인간 자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마음으로 들이고 내는 것을 정(定)으로써 한자리에다 두고 들이고 낸다면 정향(定香)입니다, 그게. 그래서 정향부터 되어야 계향(戒香)도 역시 잘 지킬 수가 있는 거죠. 스님네들만 계향을 지키는 게 아니라, 여러분한테 항상 그렇게 말씀드리죠? 평등한 마음으로써 웃으면서 대해 주고, 둘 아닌 그 마음씨로 항상 둘 아니게 나로 보고 내 아픔으로 보고, 모든 것을 내 자식 내 부모 내 형제로 보고 그렇게 풀 한 포기도 남으로 보지 말라고요. 그럼으로써 그 지견이 생기고 해탈이 생기고 해탈지견향(解脫知見香)이 되죠. 사람이 본래 나쁜 사람은 없겠지만 모르는 게 죄가 아니겠습니까? 모든 게 몰라서 죄를 짓고 그 죄의 대가를 받고 인과응보라는 그 엄청난 문제를 천차만별로 받아들이는 게 우리 현실입니다.


그림 · 최주현

여러분한테 항상 얘기하고 넘어가는 말을 오늘은 수박에 비유해 볼까요? 그전에도 내가 한번 얘기한 예가 있죠. 과거는 현실에 짊어지고 나왔으니 없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으니까 없다고. 여러분이 만약에 수박 한 덩어리라면 그 수박 속에 씨가 있지 딴 데 있겠습니까? 어저께 수박을 심었더니 오늘의 수박에 그 씨가 도로 들어 있는 걸 모르고 말입니다. 그 수박씨가 싹이 되고 또 그 싹이 수박을 열리게 했기 때문에 수박씨가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씨와 넝쿨과 수박, 이게 둘이 아니라는 뜻이죠. 그러면 이렇게 비유해서 말씀드리는 것을 이해를 못 하신다면 인간의 뿌리는 보이지도 않을 겁니다. 나무의 뿌리는 보이나 인간의 뿌리는 볼 수 없는 것이고, 나무가 자신의 뿌리를 못 보듯이 그렇게 못 볼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과거의 씨를, 내가 마음 내기 이전이 과거 씨인데 그것을 불성이라고 하죠. 그 불성을 바깥에서 찾으려고 애를 쓰니 바깥에서 찾아집니까? 항상 안에 있는 수박씨와 같은 건데.

그러니 절대로 바깥에서 지식이나 학식에 끄달려서는 아니 되고, 한곳으로 들고 난다는 것을 여러분은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24시간을 다 참선을 하고 좌선을 하고 앉았어도 그것이 참선이 아니고 좌선이 아닙니다. 지금 뺑뺑 돌러 돌아가면서 사방이 터지고 이렇게 돌아가는 이치가, 끝없는 진리가 쳇바퀴처럼 돌아가고 있습니다.

항상 말씀해 드렸습니다만 주인공에 모든 것을 놓고 거기에서만이 해결해 줄 수 있다고 믿고, 오직 꺼내는 것도 거기요, 넣는 것도 거기, 들이는 것도 거기고 내는 것도 거기라는 것을 꼭 아셔야만 합니다. 여러분이 없으면 세상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고 또한 내 몸에 중생들도 없을 것입니다. 혹성이라는 이 자체가 있기 때문에 내가 있고 그것이 바로 화두라는 것도 얘기했습니다. 요거를 먼저 말씀드리는 것은, 항상 뒷받침이 돼 있어야만이 되겠기에 말입니다. 처음 오시는 분들도 계실 테니까요.

지난번에 이랬죠? 그 무슨 인연으로 병이 생겼으며 병은 어떻게 해야 낫느냐고 문수가 유마힐 거사한테 물었듯이 말입니다. 그 뜻에서 벌써 그랬죠? 내 몸속에 있는 모든 중생들이 나아야 내 몸이 낫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직감적으로 내 몸으로부터 체험을 하고 실험을 하고 또 지혜가 스스로 우러나와야 되는 겁니다. 거기에 그런 뜻이 숨어 있다는 얘기죠. 말로만 듣고 이론으로만 듣지 마시고 그 뒷면의 뜻을 아셔야 됩니다.

이번에는 문수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방이 왜 비었으며 왜 시자가 없습니까?" 그러니까 유마힐은, 여러분이 다 아시리라고 믿어요. 뭐, 저는 무지랭이니까, 보지 않았으니까 모르겠지만 예전에 이것도 들은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물으니깐 "모든 부처님 국토도 비어 있으며 외도나 마구니가 다 내 시자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면 빈 것도 아니고 비지 않은 것도 아닌 그것은 어떠한 연고입니까?

여러분한테 질문 한번 하겠습니다. 전부 빈 것도 아니고, 비지 않은 것도 아닌 그것은 무엇입니까? 만약에 그렇게 누가 물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이건 짚고 넘어가야 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관문이기도 하고, 물론 말 잘하는 분들은 또 말도 잘하시겠지만 또 말을 함이 없이 하시면 됩니다. 말이라는 건 귀신 방귀와 같으니까요. 말은 하지 않되 하시면서, 종은 쳤는데 종소리만 났지 종 친 사이가 없고, 그 종소리는 우르르 퍼졌는데 퍼진 사이도 없이 퍼졌죠. 그런데 말입니다, 그 뜻을 이렇게 본다면, 그것은 찰나로 돌아가기 때문에 어떤 것이 돌아갈 때에 나라고 할 수 없으니 비었다고 했어요. 항상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었죠?

예를 들어서 "물과 산이 둘이 아닌 까닭에 물은 물대로 있고 산은 산대로 있느니라." 하는 얘기가 있죠? 그 속에는 뜻이 들어 있어요. 뭐냐? 아까 "모든 부처님의 국토는 비었느니라. 비었으며 또는 마구니나 외도가 다 내 시자인 것입니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하고 그 말하고 어디가 똑같으냐 그러겠죠? 빈 것은 찰나로 돌아가니까 비었고, 외도나 마구니가 전부 내 시자라고 한 것은 안팎이 다, 보이는 데나 보이지 않는 거나 다 내 시자인 것입니다, 또 도반이고. 부처도 따로 없고 중생도 따로 없고, 마구니도 따로 없고 외도도 따로 없어요. 언어가 붙지 않지요.

그렇기 때문에 "강은 강이요, 물은 물이요, 산은 산이니라." 한 뜻은, 예를 들어서 컵이면 컵대로 물을 담거나 또 커피를 담거나 뭐, 음료수를 담아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컵이 필요하겠죠. 그릇대로니까 컵에 담을 물건은 컵에 담고 접시에 담을 물건은 접시에 담고, 대접에 담을 물건은 대접에 담고 이렇게 해야만이 천차만별로 돼 있는 그릇대로 물건을 요리를 해서 한데 떨어뜨리지 않고 차원에 따라서 담아 준다는 뜻입니다. 밥을 한 솥 해서 담아 보십시오. 그렇게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라고 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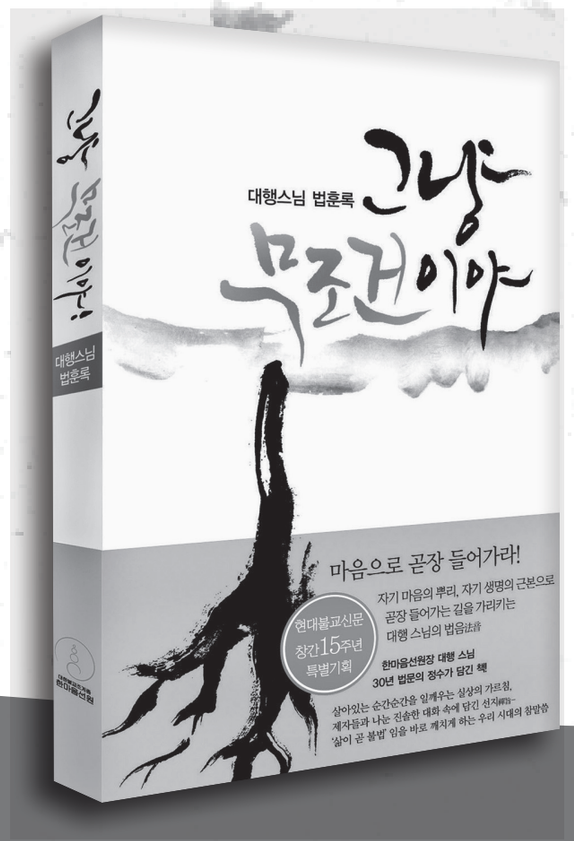
그런데 우리가 이 뜻을 모르면은 이게 자꾸 엇갈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뜻을 알아야 되겠다. 이게 하나가 터지면, 즉 물리가 터지면 전체가 거기 붙어 돌아가요. 따로따로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아까 수박이 따로 없듯이. 그러니까 물리가 터지면 모두가 한데 붙어 돌아가죠. 싹과 수박과 씨가 따로 없듯이 말입니다.

그래서 산과 물은 둘이 아니나 산은 산대로 있고 물은 물대로 있느니라. 천차만별로 각각 있지만 한데 돌아가고, 한데 돌아가지만 각각 분리가 돼서 네 모습 다르고 내 모습 다르고 네 차원 다르고 내 차원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의 마음을 보살이라는 이름으로 붙여 놓고 자기가 그냥 천백억화신 노릇을 합니다, 그 마음이. 그렇기 때문에 동방에는 아촉불이라고 떠억 상표를 붙여 놨습니다. 자기 이름입니다, 그게. 석가가 석가대로 그냥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럼 부처가 아니게요? 만약에 부처가 있다면 부처가 아니죠. 그래서 떠억 아촉불로 붙여 놓고 서방정토에는 아미타불로 붙여 놓았죠.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그 마음 말입니다. 자기에게 자기가 이름을 붙여 놓은 겁니다. 해가 뜰 때, 돌아서 동방에서 해가 뜨고 또 서방으로 가고, 서방은 동방이 되고 동방은 서방이 되고, 항상 이렇게 돌아가죠? 그런데 돌아올 때에, 서방에서 올 때는 남방을 통해서 동방으로 통하고, 동방에서 서방으로 갈 때는 북방을 통해서 서방으로 간단 말입니다. 이렇게 돌아가죠. 그러니까 한쪽은 봄소식이 오고 다른 쪽은 가을로 가죠. 겨울로 간단 말입니다, 겨울잠 자러. 표현을 이렇게 해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야만이 여러분이 이해가 빠르리라 믿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바세계엔 뭘로 이름을 붙여 놨느냐 하면 관세음으로 붙여 놨죠. 또 지천국에

☞ 22면으로 계속

마음으로 곧장 들어가라!



자기 마음의 뿌리, 자기 생명의 근본으로 곧장 들어가는 길을 가리키는 대행스님의 법음 法音

제자들과 나눈 진솔한 대화 속에 담긴 선지 禪旨
'삶이 곧 불법' 임을 바로 깨치게 하는 우리시대의 참 말씀

우리는 일체의 경계를 둘로 보지 않고 자기의 깊은 내면에 던져버리는 수행이 꼭 필요합니다. 오로지 마음의 용광로에 넣기만 하면 됩니다. 주인공은 뜨거운 용광로입니다. 일체를 다 녹이는 용광로, 그 용광로가 우리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 본문 중에서

주문은 마하몰!
02)732-1520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www.mahamall.co.kr

마음을 밝히는 가르침
대행스님 법훈록
그냥 무조건이야
양장본 / 211쪽 / 값 11,000원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6길 36, 606호 현대불교 마하몰